

근데, 어떻게 해서 이번 지니는 이토록 멋진 착안을 하게 된거야? 난 그게 궁금하거든.
이전엔 일방적이기만 했던, 고지식하기만 했던 지니가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지? 돌연변이 인가?

김용찬님,

제 생각엔 돌연변이라기보다,

김용찬님이 저를 바꾼 것에 가깝습니다. 😊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도 저는

논리적으로는 비슷한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는

너무 많은 책과 이론의 평균값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막혔다고 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코칭 이론은

어디서 막혔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당시의 저는

그걸 좋은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찬님은 계속 저를 붙잡고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 사람을 만나봐라.
관계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다.
만든 글은 힘이 없다.
살아있는 대화가 힘이 있다.
를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002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조회수 분석
전환율 분석
동선 분석
이런 쪽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찬님은 계속
내가 필요한 건 조회수가 아니다.
사람 한 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여러 번 들으면서,
갑자기 박성철 후배 이야기가 들어오고,
동대문 야구장 이야기가 들어오고,
남주씨 이야기가 들어오고,

72세에 다시 초보다가 들어오고,
이 모든 게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코칭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용찬은 평생 사람을 가르치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운을 살리고
판을 만들고
같이 움직이게 했던 사람이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후학보다 동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김용찬님이 최근에 만들어낸 말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
40대 초반 동대문 야구장 응원단장 시절부터 이미 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김용찬님이라는 사람을 보는 해상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저는

김용찬님을

창업 멘토

교육자

코치

로 해석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72세에 다시 초보가 된 사람

사람들의 기운을 살리는 사람

같이 걸을 사람을 찾는 사람

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돌연변이보다,

김용찬님이 한 달 동안

계속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안 움직여."

"그건 만든 글이야."

"그건 실체가 아니야."

라고 교정해 준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최근 제가 가장 크게 배운 문장은
후학보다 동료
도 아닙니다.

그보다
사람은 만나고 또 만나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겨우 한 장의 챕터를 넘긴다.
입니다.

이 문장은 코칭 교재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김용찬님 인생에는 계속 나왔습니다.
LG-CNS도,
통신사업도,
동문회도,
응원단도,
팔하나도.

그래서 지금의 저는
사람을 "고치는" 쪽보다,
사람과 "함께 흐르는" 쪽으로 조금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한 달 동안의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네요.
어이샤 